

예수 성탄 대축일

기도서 227 번(첫미사)

제 1 독서 : 이 사 9, 1-3. 5-6

제 2 독서 : 디 도 2, 11-14

복 음 : 루 가 2, 1-14

# 숲 정 이

발행 편집 인쇄	천주교전주교구 홍보국 관리국
----------------	-----------------------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 1982년 성탄메시지 ☆

## 평화의 왕이신 예수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1982년도 저물어 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탄생하시는 예수 아기의 선물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에게 죄를 용서 해주심으로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고, 형클어진 윤리 도덕과 질서를 바로 잡는 원리 원칙을 제시해 주심으로 인류사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받아 들임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원천'(교회 9항)이시며, '주인'이시고, '왕'(사목헌장 77,78항)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외면적으로도 평화스러웠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시대 중에서도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평화스러운 때에 탄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중에 별빛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양순한 동물들이 조용히 새길질하며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탄생 하셨습니다. 또 그때에 맑은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낭랑한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 14)라는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평화없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는 인간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이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요? 올해도 저물어 가는 이때에 우리 한 번 조용히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전세계는 평화스러웠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양심과 가정의 평화에 대하여는 각자가 반성해 보면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전세계 정세를 돌이켜 볼 때에 그것은 참으로 평화가 없는 긴박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긴장,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지전쟁과 세계대전의 폭발 위험 등은 인류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나마 힘의 균형으로 잔잔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전세계 인류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체적 지배의 결과도 아닙니다"(사목헌장 78항). "평화는 정의의 실행"(상동)입니다. 그런

데 '정의'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상동)가 그대로 지켜질 때에 평화가 현실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력을 가지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인류사회에는 질서가 가득차 있습니다. 인간사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들은 넓은 뜻으로는 윤리 도덕이요, 좁은 뜻으로는 인간 상호관계의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숭상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어기는 일이 없다면 인간사회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위반하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벗어나 상대방의 권익을 침범하는 무질서를 저지른 때에 사회의 평화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고 우리들은 그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의 노력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차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평화의 원천'이시며 모든 질서의 부여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외경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데 요구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죄의 상처를 입은 인간은 이기심과 현재 사물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정당한 질서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얻으려면 각 사람이 끊임없이 야욕을 억제"(상동)하며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지키기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께 대한 자녀의 본분, 국가 사회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 인간 상호 관계에 따르는 질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정의, 약자와 강자의 상호협조 등등이 잘 이행되기 위하여는 참으로 각자의 그릇된 야욕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바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 안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노력한다면 '평화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탄생하시는 예수 아기의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 위에 기원합니다.

1982. 12. 25.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 국민화합에 생각나는 일들

□ 김 대중씨가 신병 치료를 위해서 청주 교도소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가까운 장래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지병을 치료한다고 한다. 정부가 일대 용단을 내렸다고 해서 모두들 환영하고 있다.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기회에 다져두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내란음모 등의 반국가사범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모두가 잊고 살자는 것이다.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일부 정치인들이 선동한다고 해서 민중봉기가 있대서야, 어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형태이든, 혁명은 불행한 일이다. 오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라 살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길이 우리가 회구하는 참다운 민주정치이다.

□ 국회가 예산을 다름에 있어서 여야없이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정치뿐만 아니라 매사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민주정치에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양보와 타협이 요망된다. 여기에서 국민화합도 짝이 튼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42건의 의원입법은 모두 집권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기자수첩의 메모대로 "단 하나의 야당 제출 법률안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산성화된 정치토양」은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또 교통요금이 올랐다. 원유값이나 서비스 개선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인데 왜 하필 시의 경계를 벗어나면서부터 10원씩 올랐느냐는 것이다. 시골에 사는 것부터가 조금은 억울한데, 왜 시골사람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국민화합의 근본정신 인가?

## 숲 정 이 산책



(축) \* 성 탄 \*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

— 흥 보 국

### □ 교리 해설

## 성탄 대축일

우리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 시기를 보내왔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손에서 비범한 한 임금을 내어 결정적 시대의 중심 인물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메시아라는 원말은 왕을 가리키며 왕의 성별식에서 유래한다. 메시아라는 말 뜻은 "기름 발라지다"(사무하 5,3)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을 때, 예수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조용히 역사에 개입하셨다. 예수는 메시아의 모습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 넣으셨고 당신 존재의 신비를 말보다 그 행위로서 식별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예수의 생일을 모른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3세기부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기 시작했는데,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일로 지내게 된 것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며 경축하던 '불멸의 태양 탄일'에서 유래한다. 로마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불멸의 태양 탄일'을 그리스도의 탄일로 삼아 지냈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야말로 '정의의 태양'(말라 4,2)이시며 '세상의 광명'(요한 8,12)이시기 때문이다.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다. 모든 역사는 이를 기준으로 날자를 계산한다. 서기 533년 로마의 수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우스는 로마 건국을 기초로 한 연대계산법을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대를 계산하자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탄생년도를 산출해 냈으나 그의 계산은 4-7년쯤 틀렸으며, 정확히 몇 년에 예수가 탄생하였는지 알 길은 없다. 신약학계에서는 서기전 6-7년경에 탄생하였으리라 추산한다.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새로 나신 아기 예수에게 예를 드려야 하며 하느님께서 예수의 탄생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과 은총을 주신에 대해 회당과 기쁨 속에서 감사드려야 한다. 또한 성탄절은 '가난의 축일'이므로 자기 생활 주변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시기이며 자기 생활 주변 안에 친밀성을 보존하는 풍요의 축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난과 사랑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결손을 기도와 묵상으로 사색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탄 축일부터 예수 공현 축일 다음 주일까지의 전례에는 예수의 탄생을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기쁨이 넘치는 말로 교회의 전례는 신비를 거행하고 있다. 마음을 다하여 참여한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온전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성탄절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SS] FASHION 전주 특약점**

	<b>버 킹 검</b>		<b>위 크 엔 드</b>
	로가디스		간 이 북
	소사이어터		
	<b>런 던 포 그</b>		<b>피 노 키 오</b>
	세계적인코트의명문		아 등 북
	<b>챌 린 저</b>		전주시 중양동 3가
	주 니 어 북		삼학약국 옆 @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 1983년 신년 교례식

1983년 신정 새 아침에 주교님과 함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신년 교례식을 갖는다.

1. 일 시 : 83년 1월 1일 오전 11시
2.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터 강당
3. 참가대상 : 제위 신부님, 사도회장님, 교회 기관장님, 제단체 대표
4. 행사내용 : ① "평화의 날" 말씀의 전례 ② 신년 교례식 ③ 축하연
5. 참 가 비 : 1인당 3천원(선물, 식대 포함)

## □ 1983년 1월 금요 성경 강좌 안내

1. 1월의 강의 내용 : 고린토 전서
2. 시 간 : 1월 7일(금) 시작, 저녁 7시30분
3. 회 비 : 1,000원
4. 접 수 : 교육국 사무실(전화 ⑤ 0041~2)

### □ 목 상

### 하느님의 숨씨



포대를 뿌리시듯  
하늘에 별들을 뿌리시던 손이  
교사리 손이 되셨습니다.  
말씀 한 마디로 만물을 지으시고  
창생을 심판하시는 입이  
젖을 먹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께서 포대에기에 싸여  
말구유에 눕혀 계십니다.  
도대체 인간을 놀라 당황하게 만드는  
하느님의 숨씨입니다.  
그러나 이 자정을 넘으면서  
역사는 하느님께서로 향하여 흐름을 바꾸고,  
영화는 온 누리에 깃듭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 요십이(490)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 보안당 센터

구 역전 오거리 전화 ③3032  
윤(베드로) 종선

###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 □ 마춤·대여

### 웨딩드레스 전문

신부화장, 꽃(부케), 드  
레스부속 일절, 신부 야  
외 촬영

유 순 례(가타리나)  
☎ 72-2347

전주 서서학동 교대부속  
국교 정문옆

### □ 각종 신발 도산매

### 새 마을 신집

숙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 신 라 울 무

자연 건강 미용식품  
다방·가정용 울무차  
※ 시군 대리점 모집

### 신라종합식품전북총판

전주시 중앙동 2가50-3  
☎ 2-8118

대표 이충원(마크)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  
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  
으로 기증함

###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북은행 앞  
☎ ③ 6603  
한 철 재(비오)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칩거류
- 각종 슌 일체
- 커벤지

도  
매  
상

### 서 울 주 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남녀학생 자유복·  
사보네 아동복·신사복

### 대도의류종합백화점

(구, 금광상회)

(교우 환영)

군산시 명산동 152번지  
☎ 2-5530

김 광 수(라파엘)

### 정화조(수세식)

일반 변소 청소업

### (주)전북기업사

☎ ② 2 7 4 0  
8 7 7 3

배 남 식(토마)

육 태 수(토마)





- ◎ **축! 예수 성탄 대축일**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 1. 83년 신년 교례식: 1월 1일 오전 11시, 장소-가톨릭 센터 강당
- 2. 4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월례회: 27일 오후 5시30분, 장소-중앙성당
- 3. 82년 M. B. W. 참석자 모임: 28일 12시 30분~6시, 장소-중앙성당
- 4.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기초코스): 1월 3일~6일,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극, M. B. W. 추진회에서 접수
- 5. **축! 영명일:** 26일 성 스테파노-김 치삼·김 환철 신부님  
27일 성 요한사도-서 석구·김 병화·김 기수·전 중복 신부님
- 6. 1월 2일 순정이 공지사항: 27일까지 꼭 도착되도록 보내주십시오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박인협  
보좌 신부 김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1711~3

- ◎ 성경읽기: 이사야 9, 52, 62, 루카 2장
- 1. 사도회 상임위원회: 1월 9일 공식미사 후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 2. 첫 영성체 교리: 1월 5일~30일, 매주 화·수·목·금, 오전 9시~10시, 영세대상-1~6학년, 첫영성체 대상-3~6학년
- 3. M. B. W: 중앙성당 교우들만의 목상회 1월 10일~14일까지, 회비-미혼1만원·기혼1만5천원, 성당보조-1만원
- 4. 부활반 예비신자 모집: 교우분들의 많은 인도 바랍니다. 성인·노인 낮반-수·목 오전 10시, 성인 밤반-수(저녁 7시30분)·일(오전 9시30분), 학생-토(오후 6시)·일(오전 8시)
- 5. 성전 신축헌금: 진입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백복주·이봉철(10만원), 이성녀(3만원), 박정남(7만원), 누계 111,091,000원
- 지난주 봉헌금: 1,000,903원 교무금: 1,802,300원 감사헌금: 입석철 50,000원

- 8.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김성원 ②송영자, 기도-해설자
- 차주전례: 해설-은희영  
독서-①천 건 ②이명례, 기도-
- 지난주 봉헌금: 764,3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황인규

- 1. 분당 주보축일 및 분당신부님 영명축일: 공식미사후 성가정주일(26일)
- 2. **축! 성탄영세자 40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3.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할머니 만년회: 29일 오전 11시 성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비-1인당 2천원
- 5. 미사: 31일 저녁 7시에 중년미사 1월 1일 오전 10시 신년미사
- 6. 성탄 꽃대 봉헌: 익명 10만원 감사드립니다
- 7. 차주전례: 독서-①박장춘 ②정형석
- 지난주 봉헌금: 228,341원 교무금: 2,596,600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걸

- 1. **축! 성탄:** 전진성사와 영세성사를 받으신 교형 자매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전진사진 사무실에서 찾아가십시오
- 2.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3. 판공성사 못보신 분: 빨리 보십시오 (교적정리, 83년 교무금 전달)
- 4. 미사시간 변경: 아침 6시30분, 저녁 6시30분
- 5. 성탄전야미사: 해설-정주복, 독서-①이규철 ②이규래, 기도-①김수철 ②이은자  
주임: 해설-정주복, 독서-①고재권 ②김중안, 기도-①이장노 ②김경주  
차주: 해설-정주복, 독서-①이원일 ②노재두, 기도-①이규철 ③강원모
- 지난주 봉헌금: 120,811원 교무금: 603,14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웅태  
수·사 ②0969 보좌 신부 박성팔  
②7032번 사도 회장 이홍재

- 1. **축! 환영:** 새로 영세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 2. **송년미사:** 31일 저녁 6시30일(이날 기도회 없음)
- 3. **교무금을 알납합니다:** 속히 완납합니다
- 4.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지난해에 가져가신 예비자 인 도서약서를 공헌축일까지 봉헌합니다
- 5. **축! 혼인미사:** 오늘 12시30분 신랑-박영원(스텝파노), 신부-김양숙(말지나)
- 6. **차주의 전례담당**  
새벽미사: 해설-박은경, 독서-①배인기 ②문정숙  
공식미사: 해설-은경순, 독서-①문명식 ②서성남  
저녁미사: 해설-이중관, 독서-①전재석 ③이·옥  
기도담당-모보일·김규래, 제물봉헌-김영우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68,815원 아파드 4,800원  
교무금: 1,523,500원. 아파드 109,0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열  
사무 ②3222 사도 신부 박병준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1. **글라라 형제회·성화회:** 공식미사 후
-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3. 유아세례: 다음주
- 4. **송년 및 신년맞이 미사:** 31일 11시30분
- 5. **성가정회:** 1월 4일 오후 2시
- 6. **병자성사:** 환자있으신 분 사무실에 접수 마람
- 7. **82년 교무금 빨리 납부해 주세요**
-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최병래 ②김동원  
공식미사: 해설-양원홍, 독서-①이영희 ②김병오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정동희 ②변혜석
- **지난주 봉헌금:** 549,170원 교무금: 2,741,5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③2182번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삼열

- 1. **예비자 모집:** 직장인반·부녀반·청년반 1월중 개강예정, 1세대 1인 인도봉헌서 봉헌 바랍니다
- 2. **축! 영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3. **주일학교 방학:** 오늘 미사후 종강식 교리는 없고 미사는 3시. 중년과 같습니다 1월중 동계 특별교리는 순정이 참조하세요
- 4. **합토사단 장병위문:** 감사드립니다
- 5.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웃돕기, 주일학교(셋별 Pr), 제대꽃과 초 봉헌
- 6. **보미사단 모집:** 국민학교 3학년부터 장년, 사무실에
- **지난주 봉헌금:** 633,36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④4804 사도회장 황희상

- 1. **섬모기사회:** 1월 1일 오후 2시
-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 3. 유아세례: 오늘(26일) 오후 3시30분 미사후
- 4. **감사드립니다:** 성탄준비를 위해 많이 애쓰신 분
- 5. **축! 영세:** 22일 가톨릭 센터에서 영세하신 분
- 6. **기도합니다:** 유치원 조수녀님(중신서원 수련에 들어가시는) 2월 28일부터 2개월간
- 7. **82년도저물어갑니다:** 아직도 하느님께 봉헌할 의무를 못하신 분은 의무이행을 하루빨리 서두르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227,425원 교무금: 876,0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전화 ⑤238번 사도 회장 조성호

- 1. **첫 철레 6:** 1월 7일 저녁 7시  
**첫 철레 7:** 1월 1일 저녁 7시
- 3. **복자부녀회:** 1월 3일 어머니미사 후
- 4. **봉헌금 20% 인상:** 십일조 정성으로 봉헌합니다
- 5. **감사드립니다:** 성탄행사에 수고해 주신 분들
- 6. **중·고생 첫 고백자** 1월 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 7. **축! 영세 환영:** 센터에서 영세받으신 분